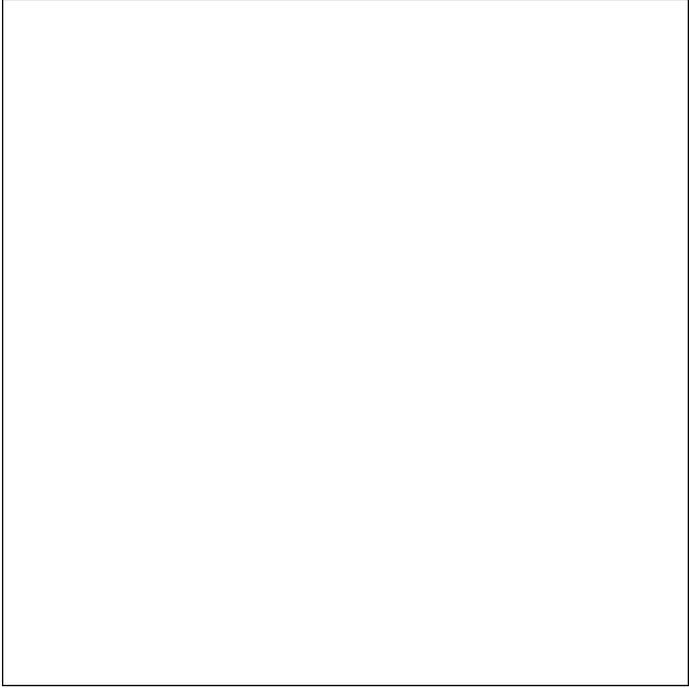


지구와 이야기



Ann Nduku ✎
Wiehan de Jager ✎
Michelle kim 📄
3
한글어 [ko]



Global Storybooks

globalstorybooks.ne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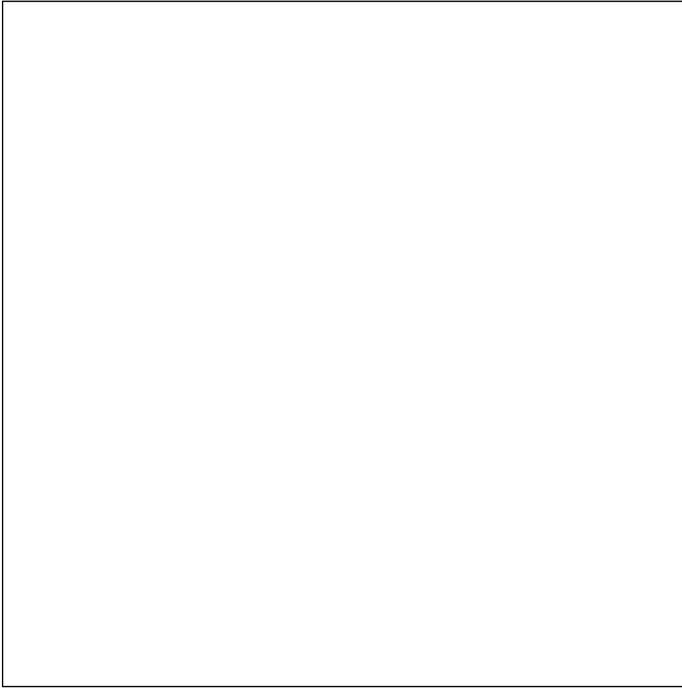
지구와 이야기

Ann Nduku ✎
Wiehan de Jager ✎
Michelle kim 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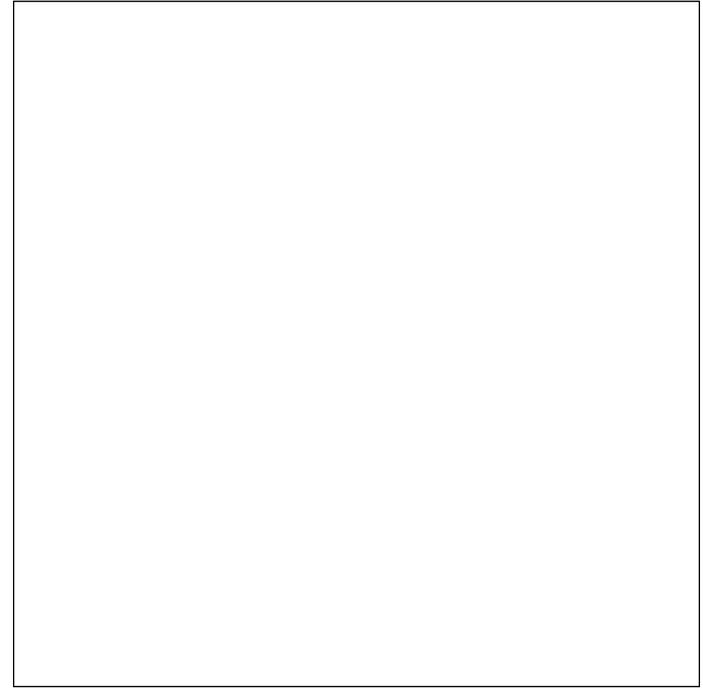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
[Attribution 3.0 International License.](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3.0)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3.0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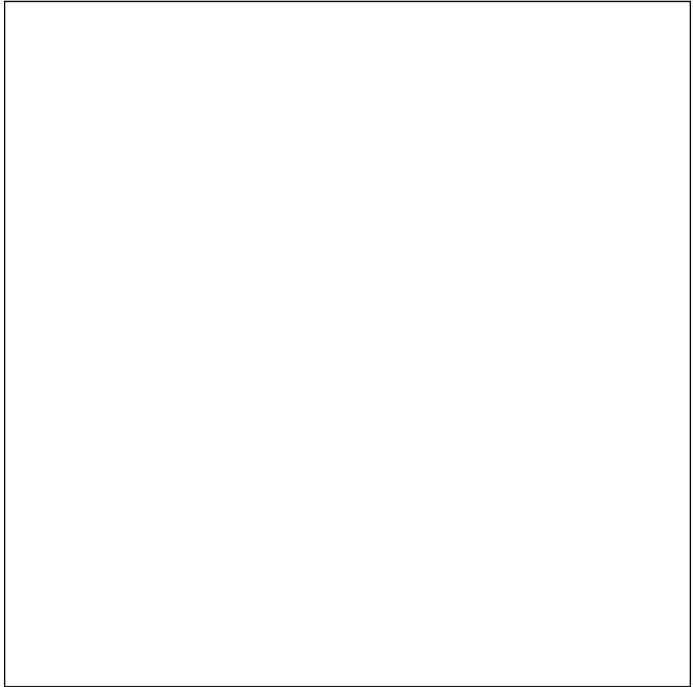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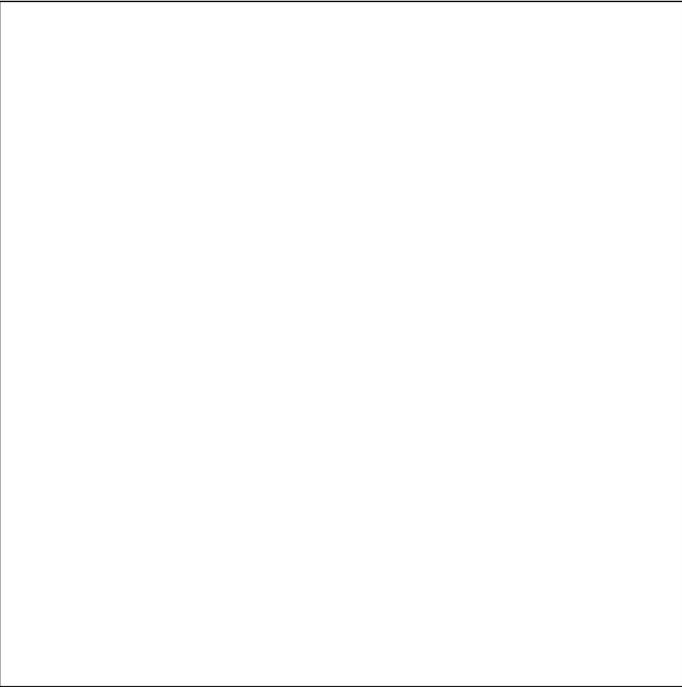
옛날 옛적에, 닭과 독수리는 친구였어요.
그들은 다른 새들과 평화롭게 살았죠. 아무
도 날 수 없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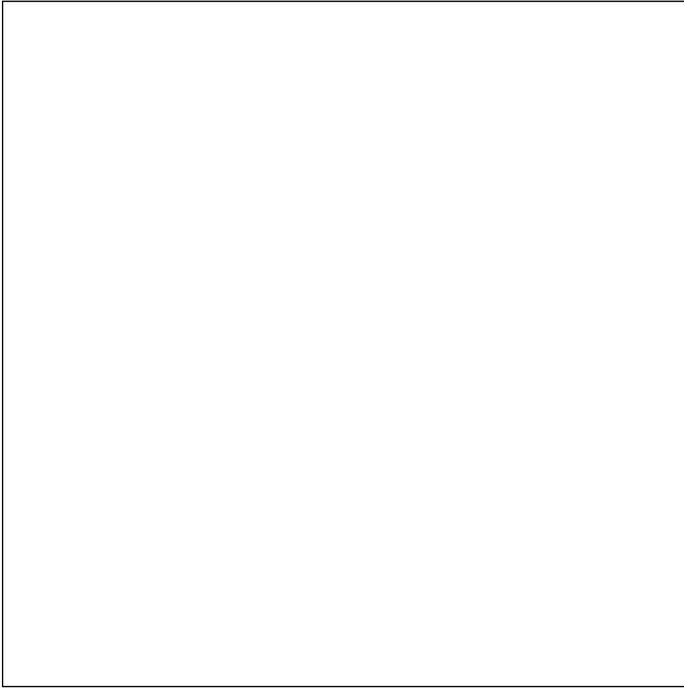
독수리 날개의 그림자가 땅에 나타날때, 닭
은 병아리들에게 충고했어요. “이 아무것
도 없는 땅에서 부터 피해.” 그러자 병아리
들이 대답했어요. “우리는 바보가 아니에
요. 우리는 도망갈 거예요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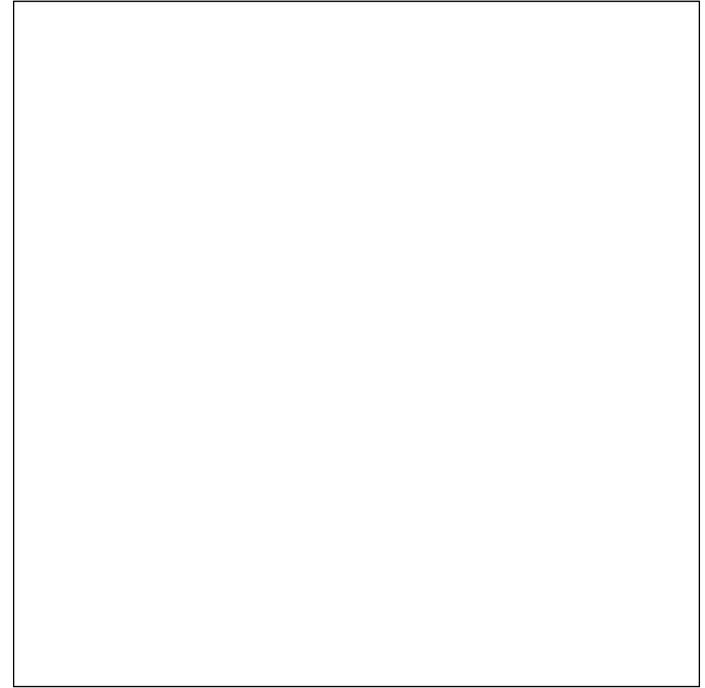
어느 날, 땀에 먹은 게 더이상 없게 되었어
요. 독수리는 먹은 것을 찾으러 아주 멀리
걸어 갔어요. 그녀는 지쳐서 돌아왔어요.
“공명히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을까야!”
라고 독수리가 말했어요.



다음날 독수리가 왔을 때, 닭은 모래를 파헤
치고 있었어요. 하지만 바늘은 없었죠. 그
래서 독수리는 아주 빠르게 날아야 할까
후마리를 잡고 멀리 사라졌어요. 그 다음
부터 독수리는 나타날 때마다 모래를 파헤
치고 있는 닭을 봤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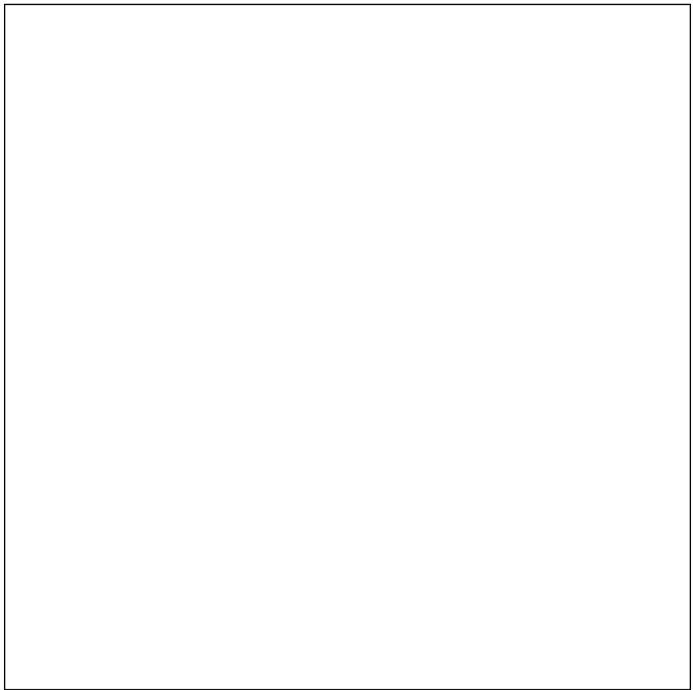


하룻밤을 잘 자고 나서, 닭은 좋은 생각이 났어요. 그녀는 다른 새들한테서 떨어진 깃털을 줍기 시작했어요. “우리 이 주운 깃털들을 우리 깃털에 붙이자, 그러면 우리가 멀리 다니는게 더 쉬워 질거야.” 라고 닭이 말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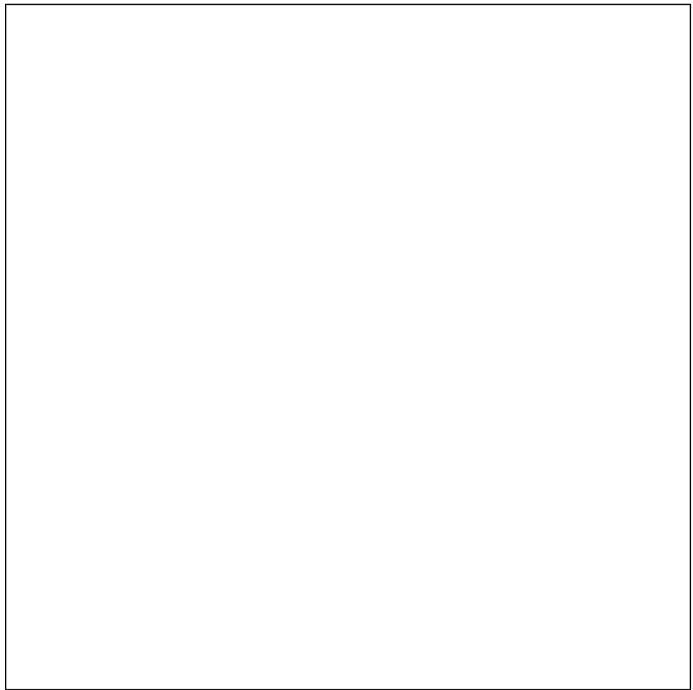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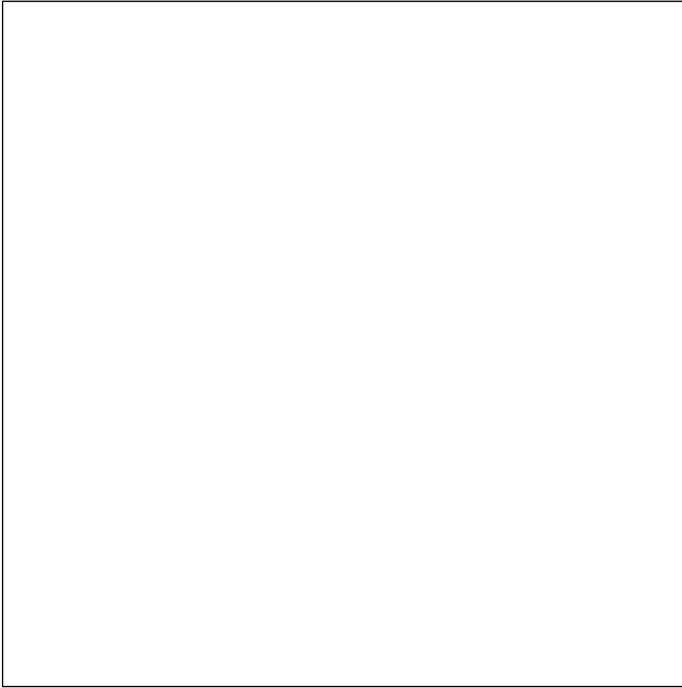
“나에게 하루만 줘, 그러면 네가 날개를 고치고 다시 음식을 찾으러 날아갈 수 있어.” 라고 닭이 독수리에게 부탁했어요. “그럼 하루만이야, 만약 네가 그 바늘을 찾지 못하면, 너의 병아리들 중 한마리를 줘야돼.” 라고 독수리가 말했어요.

그 마을에서 독수리가 돌아왔어요. 그녀는
 서독수리가 처음으로 바느질을 시작했어
 요. 그녀는 아름다운 냇개를 만들고 닭워
 폼푹이 뒹아요. 닭은 바느를 밧렸지만
 바느질이 쉬웠어요. 그녀는 바느를 찬자
 위에 령려놓고 애틀에게 먹음 것을 해주려
 고 부역에 틀어 갔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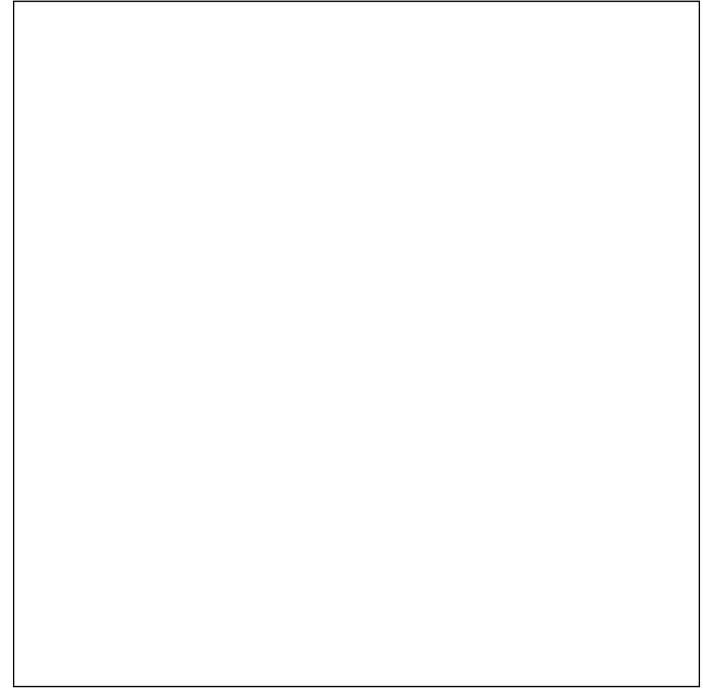


그날 오후, 독수리가 돌아왔어요. 그녀는
 여해 중 느슨해 진 냇개를 고치려고 바느를
 령려 달라고 했어요. 닭은 찬자 위를 찾아
 보고 부역도 찾아보고 마담까지 찾아 왔어
 요. 하지만 그 바느를 찾을 수 없었어요.





하지만 다른 새들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. 그들도 날개를 만들려고 닭에게 바늘을 빌려 달라고 했어요. 곧 새들은 하늘 곳곳을 날았어요.



마지막 새가 바늘을 돌려 주려고 했을때 닭은 그곳에 없었어요. 그래서 병아리들이 바늘을 받아 갖고 놀기 시작 했어요. 노는 것이 싫증이 났을때, 바늘을 모래에 두고 왔어요.